

# 심각한 고려인삼 위조상품 근절대책은 없는가?

-진품확인시스템을 활용한 고려인삼 유통혁신전략-

권혁인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교수

- 1. 개요
- 2. 인삼상품 유통의 문제점 고찰
- 3. 유통혁신전략
- 4. 진품확인시스템
- 5. 기대효과 및 결론

## 1. 개요

일반적으로 인삼제품이란 토양에서 재배된 인삼을 물리적 내지 화학적으로 처리·가공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래로부터 인간생활과 밀접한 보건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려인삼은 동남아를 비롯한 구미에서까지 그 평가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인삼제품의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원료삼의 수준에서는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품질 역시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가공품으로서 상품화하는 데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삼, 미국삼이 공격적인 시장공략으로 시장세가 팽목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 인삼의 주생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판매를 위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인삼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산 백삼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힘을 잃어 버렸고 대부분 국내시장에서만 유통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그나마 명목을 유지해 왔던 우리 인삼가공제품의 고유한 제품 및 시장영역이 국제시장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시장에서마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나 아예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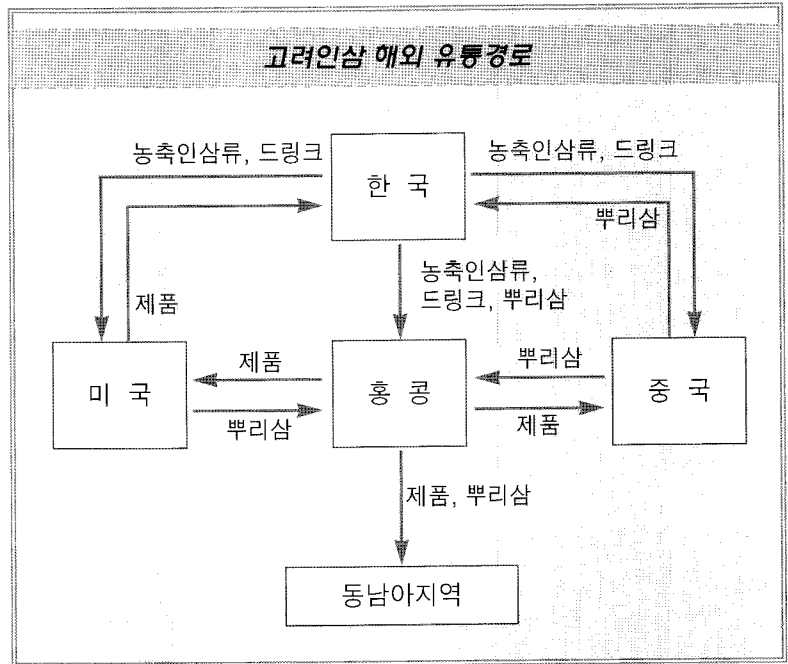
한편, 인삼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세계

무역질서의 개편과 정보통신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제상거래의 정책적·관행적인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200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농산물 전면 개방 등과 같은 대내외적으로 기업 환경에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삼산업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의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인삼을 차별화요인이 적고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삼(뿌리삼)상태로서 상품화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고부가가치 가공상품화하고 국내생산 인삼과 외국산 고려인삼을 차별화하는 특화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국제 상거래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홍콩 시장에서조차 한국인삼의 품질이 과거보다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주원인은 고려인삼과 식별하기 어려운 위조삼과 유사제품이 유통되기 때문이다.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표기를 도용한 것은 물론 외관, 표시, 보증서, 검사인까지 위조하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에서는 인삼제품에 한글상표를 붙여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든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뿌리삼



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한국에서 생산된 고려인삼으로 위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제품명의 한글표기와 신선도 그림을 인쇄해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수삼의 80%가 금산 인삼시장을 경유하면서 원산지 바뀌는 등 유통상의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가의 중국산 밀수인삼류의 불법유통으로 인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져 인삼소비 확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인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위조된 고려인삼과 고려인삼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있다고 보고, 세계 인삼시장에서 우리 인삼의 품질 및 성가를 유지함으로써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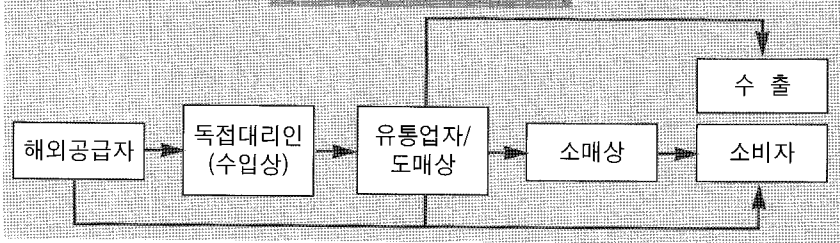
현재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와 인터넷을 연계하여 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질적인 위조 및 유사 고려인삼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농산물의 보호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제시한다.

## 2. 인삼상품 유통의 문제점 고찰

### (1) 시장현황

고려인삼은 명성이 크게 알려져

홍콩에서의 유통경로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세계적인 문화상품이다.

그러나 인삼의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1990년 2,789톤, 1억 6,490만 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0년 이후 인삼의 생산 및 수요감소와 함께 인삼수출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인삼의 주생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판매를 위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인삼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는 인삼제품 생산비 중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우리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수삼의 80%가 금산 인삼시장을 경유하면서 원산지 바뀌는 등 유통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가의 중국산 밀수인삼의 불법유통으로 인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져 인삼소비

확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삼과의 차별성을 인식시키고 품질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거 고려인삼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유사한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위스콘신 인삼위원회는 Seal Program을 실시하여 화기삼의 품질관리와 해외 인삼시장에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인삼이 타국산 저질인삼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미국인삼의 우수성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위스콘신 인삼위원회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는 농산물이 생산된 원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WTO에서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TRIPS)'를 통하여 농산물의 지리적 명칭의 사용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부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통하여 각국의 특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고유상품으로서 특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의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각국이 처한 농업여건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과 고도의 인삼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와 '농산물의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삼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그 성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변함없이 그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국제상품으로 남기 위해서는 외국산 저질인삼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② 해외시장에서의 고려인삼 유통실태

세계의 인삼은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한국인삼의 위조 및 유사품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홍콩 및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비정상거래가 활발하다.

1) 홍콩 및 대만

홍콩은 세계 최대의 인삼집산지라는 특성상 위조품과 유사품도 다량 유통되고 있다. 저가의 중국삼을 심천이나 광주 등 홍콩과 가까운 지역에서 위조하여 홍콩의 인삼상가에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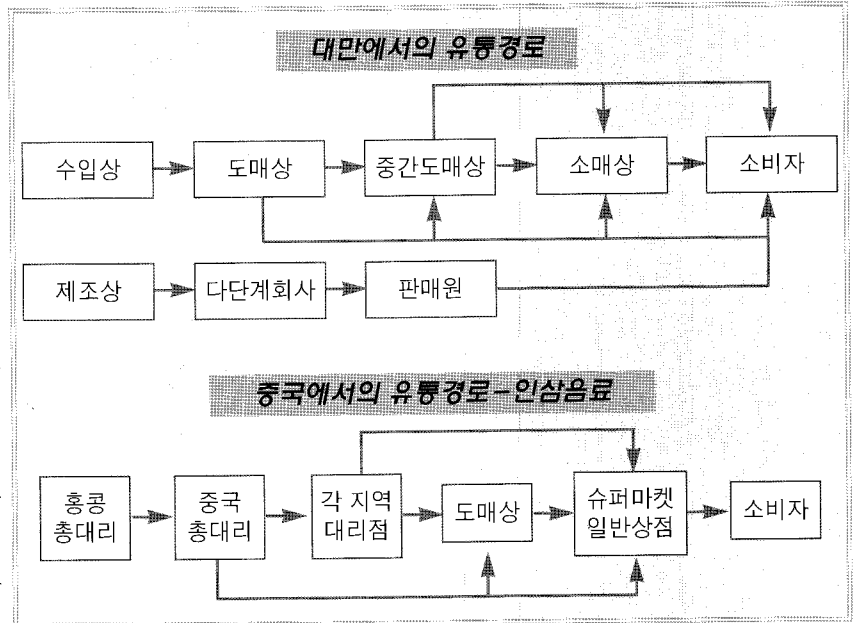
비공식 거래가 활발한 관계로 도매상에서 중국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홍콩의 친척이나 거래회사의 루트를 통하여 비공식거래가 성행하는데 중국 상인들은 진품여부의 판별에 상관없이 구입한다.

중국삼을 고려인삼으로 위조하는 것이 가장 빈번한데 주위조대상은 고가이며 공급량이 부족한 천삼이다. 원료는 한국에서 생산한 인삼과 외관이 비슷한 길림지역의 인삼이 주로 사용되어 판매상도 감별하기 어렵다.

1999년 9월부터 한국인삼공사가 홍콩법인에서는 구매시점에서 한국산 인삼의 진품 여부 확인이 가능한 telecheck sticker를 도입하여 위조삼의 방지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관장 홍삼의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서 한국산 고려인삼의 진품확인에 확대적용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고려홍삼의 지명도 및 높은 판매가로 인해 도매상의 일부 및 한의원 등에서 중국삼을 고려



홍삼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인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외관상으로도 판별이 힘든 고려인삼의 경우 위조삼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입약품관리법」에 의거수입약품은 반드시 수입약품등록을 받아야 수입·유통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한국산 고려인삼의 경우 아직 수입약품등록이 안 된 상태로 한국산 뿌리인삼의 정상적인 수입은 현재까지 불가능한 실정이다.

위조상품의 심각성은 위조 고려

인삼 상품을 적발하여 이를 근거로 판매점에 보상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고소하는 전문직업이 생겨날 정도이다.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고려삼(홍삼)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대배인삼공사 정관장 제품의 포장을 거의 똑같이 모방하여 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려인삼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귀한 약재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다른 삼에 비해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특성상 귀하고 좋다는 상품에는 반드시 위조상품이 생겨나며 고려인삼의 경우도 일부 홍콩 등을 통해 밀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조상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